

#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을 통해 본 조경 설계 교육의 쟁점과 시사점

최정민\* · 윤수진\*\*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 \*\*조경사무소 사람과 나무(주)

## The Implication and Issues of Landscape Design Education through National Exhibition of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Choi, Jung-Mean\* · Yun, Su-ji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Sunchon National University

\*\*Man and Tree, Landscape Architecture Associate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ssues and implications for landscape design education in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by analyzing the National Exhibition of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NEKLA). This study analyzed the suggested topics and selected site as well as the commentary that appeared in the NEKLA's award-winning book published from 2004 to 2014.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opics of NEKLA are not only competition guidelines but related to exploring new area and role of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Second, most dealing with site is 'industrial heritage and regeneration space' and 'green infrastructure'. In more recent years, a larger variety of sites were addressed. Third, site locations are concentrated in metropolitan areas, and awards and participation of the non-metropolitan universities was very low. Fourth, seven criteria can be applied in a general landscape design competition such as 'newness of the concept(idea)', 'logicality of the design process', 'selection of site fidelity of analysis(interpretation)', 'presentation and completion of the master plan', 'consistency with the theme', 'linkage of concepts and results' and 'feasibility'. The evaluation criteria are increasing the sophistication of the design language to provide useful suggestions on how to find design education methods. Its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raining is essential to derive innovative ideas, but it should avoid excessive concept-oriented education. Second, design education may include instruction on how to define the problems related with the site. Third, more emphasis on design logic is essential to transform the innovative concept to actual results. Fourth, 'slick images' unrelated to design should be suppressed. Fifth, practice is needed to solve the topics addressed in the design process of education. Sixth, 'feasibility' and 'creative thinking' are necessary to recognize a reciprocal relationship that is helpful to one another.

This study uses direct quote commentary to minimize the subjectivity of the researcher and to trace issues of the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more directly and vividly. This study is a record waiting for another review as meta-criticism. In this regard this study, the landscape architect of the next times will have a mean that historical records

---

**Corresponding author:** Jung-Mean Choi,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540-742, Korea, Tel.: +82-61-750-3874, E-mail: jmchoi@scnu.ac.kr

to review the current thinking of the landscape theory and design.

*Key Words: Suggested Topic, Selected Site, Commentary, Evaluation Criteria, Review, Meta-Criticism*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에 나타난 동시대 조경의 쟁점을 통해 설계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의 주제와 수상작들의 대상지와 심사평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 주제는 공모 지침일 뿐만 아니라 조경의 새로운 영역이나 역할 모색과 관련되어 있다. 둘째, 가장 많이 다루어진 대상지 유형은 ‘산업유산과 재생공간’, ‘녹색기반시설’이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유형의 대상지가 다루어지고 있다. 셋째, 대상지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수도권 소재 대학에 비해 비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참여와 성과가 매우 저조했다. 넷째, 심사평에 내포된 평가 기준을 분석하여 ‘개념(아이디어)의 참신성’, ‘설계과정의 논리성’, ‘대상지의 선정과 분석(해석)의 충실성’, ‘설계매체의 표현과 마스터플랜의 완성도’, ‘주제와의 정합성’, ‘개념(아이디어)과 결과물의 연계성’, ‘실현가능성’이라는 일곱 가지를 평가 기준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평가 기준은 디자인 언어의 정교함을 높이고 설계 교육 방법 모색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훈련이 필수적이지만, 개념 편향적 교육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상지와 관련된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훈련이 요구된다. 셋째, 설계 논리를 보다 중시하고, 개념이 결과물로 이어지게 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설계 내용과 관련성 없는 ‘현혹적 이미지’ 사용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주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대한 연습이 설계 교육의 주요 과정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실현가능성’과 ‘창의적 사고’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 관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설계 언어에 대한 고민과 정체성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 심사평을 직접 인용하여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소화하면서 동시대 조경의 쟁점을 보다 직접적이고 생생하게 추적하고자 하였다. 이는 메타크리티시즘(meta criticism)으로서 또 다른 비평을 기다리는 기록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후세의 조경가들이 현재의 조경 이론이나 설계 사고를 고찰할 수 있는 통로이자 사료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

*주제어: 공모전 주제, 대상지 선정, 심사평, 작품 평가 기준, 비평, 메타크리티시즘*

## 1. 서론

### 1. 연구 목적

공모(competition) 방식의 설계는 오래전부터 좋은 작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 결과는 동시대의 조경에 큰 영향을 미쳤다. 150년 전에 센트럴파크(1857) 설계 공모는 움스태드 스타일을 낳았고, 이로 부터의 탈피를 기치로 새로운 공원 유형을 제시했던 것도 라벨레트 공원 설계 공모(1987)였다. 베트남 메모리얼(1982) 설계 공모는 당시 대학생이었던 마야 린(Maya Lin)이 신진 작가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설계 공모는 신진 작가의 등용문이기도 하고, 그 자체가 동시대 조경의 문제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의 과정이기도 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설계적 실험의 장이기도 하다

(Choi, 2012). 공모전의 결과는 그 다음 설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모전의 주요 쟁점이나 작품을 살펴보는 것은 동시대 조경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용하다.

이런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이어져 왔다. 다운스뷰파크 국제 설계 경기를 통해 조경 설계의 새로운 전략을 타진한 연구(Pae, 2002), 메사츄세츠의 브리지파크 국제 설계 경기 당선작을 통해 조경설계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Kim, 2005), 설계 매체라는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하여 조경 설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Lee, 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대형 공원의 설계 전략을 모색한 연구(Park and Pae, 2008) 등이 대표적이다. 설계 교육과 실천(실무)의 바탕이 되는 담론과 설계 언어를 풍부하게 하는데 기여한 선행 연구들의 대상은 주로 실시설계권이 주어지는 일

회성 프로젝트들이었다.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은 2015년 현재 16년째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조경 분야의 대표적인 공모전이지만, 지금까지 연구 주제나 대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따라서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이 진행되어 온 과정과 성과를 살펴보고 정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고,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공모전을 통해 선행 연구들과는 다른 측면에서 조경의 경향성을 노출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늘푸른환경설계공모전’으로 시작되어 2004년에 지금과 같이 명칭이 변경된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은 해마다 공모 지침과 주제의 기획 의도,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과 심사총평, 수상작들의 설계 내용을 담은 작품집을 발간해 왔다(gongmo.nulpurun.or.kr). 이 작품집은 조경 비평과 학술적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기록이다. 여기에 실린 심사평들은 어떤 작품이 좋은 작품이고, 어떤 작품이 그렇지 않은 작품인지를 평가하는 심사자들의 평가 기준을 내포하고 있다. 심사평 분석을 통해 평가 기준을 도출한다면, 조경 분야의 담론을 풍부하게 하고, 설계 언어를 정교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작품의 평가 기준은 “디자인언어의 정밀함을 기르고 설계 교육의 새로운 방법을 도출하는 수단(Cho and Ahn, 1993)”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지만, 최근 참가자들은 대부분 조경학과 학생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수상작 선정에 있어서도 수상작이 미치는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선정한다고 밝히고 있다(2006, 심사총평). 또한 심사과정에 나타난 “외국 작품의 모방과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경학과 전체의 설계 교육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2008, 김제식 심사평)도 개진되고 있다.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 출품작들이 우리 조경 설계 교육의 결과물이라는 성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그 해결의 단초 역시 ‘교육’에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은 우리 조경 설계 교육의 성과를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조경 분야의 발전이나 설계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로 의미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조경 분야의 대표적인 공모전인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의 내용과 심사평을 분석하여 경향과 쟁점을 노출하고, 평가 기준의 체계화를 시도하여 설계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 2. 연구 방법과 내용

본 연구는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으로 개최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의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 작품집’에 실린 심사평과 본상 수상작 162작품을 대상으로 하였다(Table 1 참조). 본상 수상작은 입선작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상

세하게 소개될 뿐만 아니라, 심사평은 대부분 본상 수상작에 관한 것이어서 풍부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선행 연구들과 같이, 공모전 작품 분석을 통해 설계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는 대부분 작품 분석의 근거를 공모 지침에 두고 있다. 공모 지침은 설계 방향을 좌우하고, 그 자체가 하나의 설계 경향을 암시(2005, 김아연 심사평)하기 때문이다. 공모 지침은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의 주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제를 첫 번째 연구 대상으로 다루었다. 다음은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대상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주제 분석은 ‘공모요강’과 ‘작품총평’을 통해 파악하였다.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은 설계지침을 대신에 공모요강을 통해 주제를 제시하고 그 의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본상 수상작의 대상지 유형과 위치를 분석하였다. 위치 분석은 수상작품에 나타난 대상지를 지역별로 나누어 빈도를 살펴보고, 지역별로 조경학자가 개설된 대학들의 참여 실적과 성과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유형별 분석은 한국조경학회에서 제정한 한국조경현장의 ‘조경의 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동시대 조경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11년간의 누적된 기록인 작품집의 심사평 분석을 통해 평가 기준을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11년간 총 심사위원은 120명(중복된 심사위원 포함)이었고, 심사평을 남기지 않은 10명을 제외한 110명의 심사평이 분석 대상이다. 분석 방법은 심사평에 나타나는 심사자의 평가 기준을 주요어(key word)를 정리하여 유사한 것은 묶고, 다른 관점과 의견은 분류하여 유형화하였다. 한 심사평 가운데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타나는 경우는 중복하여 집계하였다. 예를 들면, “주제와 대상지의 정확한 이해와 해석”이라는 심사평(2007, 김진국)은 ‘주제’와 ‘대상지’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나타나고, 이럴 경우는 주제와 대상지 항목에 중복하여 집계하였다.

경향성 연구는 작품들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찾는 귀납적 행위로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이 불가피하지만, 본 연구는 주관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심사평(Cho and Ahn, 1993)이라는 형식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하였다. 심사평은 직접 인용 부호(“ ”)를 통해 심사자 고유의 표현을 수정 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메타크리티시즘(meta criticism)으로, ‘비평가들이 예술작품을 해석하거나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본 개념들을 분석하고 명료하게 하는 방법(Dickie, 1966)’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또 다른 비평을 기다리는 기록으로, 후세의 조경가들이 현재의 조경 이론이나 설계 사고를 고찰할 수 있는 사료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

## II.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 주제와 대상지

1. 주제

설계 공모는 다음 네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첫째는 대상지와 주제가 모두 주어지는 경우이고, 둘째는 대상지는 있지만 주제는 없는 경우이며, 셋째는 주제는 있지만 대상지가 없는 경우이다. 마지막은 주제와 대상지가 모두 없는 경우이다. 첫째와 둘째는 대부분 설계권이 주어지는 설계 공모에 해당한다. 둘째는 '용산공원 아이디어 공모(2009)'나 '마포석유비축기지 활용방안 국제아이디어 공모(2013)'와 같은 아이디어 공모에 채택되기도 한다. 셋째는 대부분의 아이디어 공모전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이 지금까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마지막 경우처럼 주제와 대상지를 모두 제시하지 않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출품자들 간의 성격과 내용적 차이가 커서 상대 비교 평가가 쉽지 않으므로 잘 채택되지 않는 방식이다. 11년 동안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에서 제시된 주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Table 1 참조).

첫 번째는 '개념적 키워드' 제시 유형이다. '회고와 전망(2004)' '다이나믹 랜드스케이프(2005)', '도시+재생(2006)', '도시인프라-조경을 만나다(2007)', '작동하는 조경(2008)'과 같은 주제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시의성 있는 이슈를 효과적으로 다루기에 적합하지만, 주제에 대한 해석의 폭이 넓어 작품과의

정합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난해한 주제(2008, 홍형순 심사평)"로 인해 "개별 작품들 간의 난이도와 해결 능력의 차이가 많아 심사의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2008, 김재식 심사평)"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두 번째는 '공간영역' 제시 유형이다. '길(2009)', '공원 도시(2010)'와 같은 주제가 해당한다. 이는 구체적 공간을 제시하여 출품자들 간의 상대평가가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이지만, 고정적 공간 영역 제시는 변화하는 시대의 가치를 대변하기에는 규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개념적 키워드와 공간영역' 제시 유형이다. '그린인프라(2011)'나 '경계(2012)' 같이 개념적 키워드를 제시하고, 출품 카테고리도 공간 영역을 제시한 경우이다. 이는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루면서 출품 카테고리를 통해 출품자들 간의 비교 평가가 보다 용이하도록 한 의도이지만, "세부 주제가 너무 많아 제출안의 주제나 스케일이 서로 달라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다(2011, 조경진 심사평)"는 평가 같이, 출품 카테고리별로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고 통합하여 수상작을 선정하면서 작품들 성격이 더 상이해지는 문제도 있었다.

네 번째는 '개념적 키워드와 대상지 규모 제시' 유형이다. '열린정원(2013)'이나 '공공복지(2014)'와 같이 개념적 키워드를 제시하고 대상지의 스케일을 출품 카테고리도 나누어 제시한 경우이다. 이는 개념적 접근이 유리한 대규모 대상지를 선정하

Table 1. Topic and category of national exhibition of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th/Year	Topic	Entries	Prize-winner
1 <sup>st</sup> 2004	Retrospect and prospect: Looking for new possibility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our times (회고와 전망: 우리 시대 조경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89	13
2 <sup>nd</sup> 2005	Dynamic Landscape: 역동하는 경관, 생산하는 경관	80	13
3 <sup>rd</sup> 2006	Regeneration and Revitalization of Urban Space(도시+재생)	113	13
4 <sup>th</sup> 2007	Plant meets plant: Industrial site Design with Eco+Culture(도시인프라-조경을 만나다)	99	18
5 <sup>th</sup> 2008	Operational Landscape(작동하는 조경)	119	17
6 <sup>th</sup> 2009	Way(길, Concept design & Landscape experience) 1. Street Scape(가로 경관), 2. Linear Park(선적인 공원), 3. Water, Nature Way(물, 자연의 통로)	103	15
7 <sup>th</sup> 2010	Park City(공원도시) 1. Park Function Design in the city(도시내 공원기능 디자인), 2. City Function Design in the Park(공원에 도시기능 디자인), 3. Convergence Design between City and Park(도시와 공원 융합 디자인)	102	15
8 <sup>th</sup> 2011	GREEN INFRA GREEN CITY(녹색인프라·녹색도시) 1. Green infran and green network, 2. Energy problem and recycling use, 3. Adaptation to global environmental change and reduction of effect of the development, 4. The role of landscape for the coexistence of urban and agricultural, 5. Roof greening and artificial Ground greening	106	15
9 <sup>th</sup> 2012	Landscape on the edges, design beyond the borders(경계의 풍경(風景), 그 경계(境界)를 넘어) 1. The edges of the city and surrounding natural green, 2. The edges of urban infrastructure, 3. The borders of private space and public space, 4. Urban green spaces within the street, Called rivers and the waterside borders, 5. Etc	101	15
10 <sup>th</sup> 2013	Ideas of the Garden in our Times(열린 정원) 1. Small Scale, Big Idea or Big Issue, 2. Big Scale, Micro View or Micro Analysis	105	14
11 <sup>th</sup> 2014	Landscape Architecture as Public Welfare(공공복지) 1. Small Scale, Big Idea or Big Issue, 2. Big Scale, Micro View or Micro Analysis	98	14
Total		1,115	162

여 구체적 디자인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레토닉으로 처리하는 참가자들이 많다는 문제 인식으로부터 출발했다. 큰 규모의 대상지를 다루면서 미시적 요소까지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작은 규모의 대상지를 다루더라도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하려는 의도였다. 대상지 스케일에 따라 '작은 규모의 대상지, 큰 생각'과 '대규모 대상지, 미시적 접근'이라는 카테고리 별로 작품을 접수하여 각 각의 수상작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 2. 대상지

### 1) 대상지 위치

"설계 공모전에서 살아남는 열 가지 팁"을 제공하는 심사평(2014, 박승진)은 첫 번째로 "주제를 잘 발견할 수 있는 대상지 선정"을 꼽고 있다. "공모전에서 피해야할 세 가지"라는 팁을 제공하는 심사평(2013, 서영애)은 가보기 어려운 "거리가 먼 대상지"와 공모전에 단골로 등장하는 "핫(hot)한 대상지"는 피하라고 권하고 있다.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가 대상지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대상지 선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난 11년 동안 수도권(서울, 경기·인천)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수상한 작품은 109작품(67.3%)이었고, 나머지 6개 권역(광주·전남, 강원, 전북, 충북, 대전·충남 등)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수상한 작품은 17작품(10.5%)이었다(Table 2 참조). 이런 수도권 집중현상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지식과 자본, 정치와 사회·공간적 이슈가 집중된 수도권에 매력적인 대상지들이 많고, 정보의 취득이 용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다음 두 가지는 주목할 만하다.

첫 번째는, 출품자들이 소속한 대학과 인접한 지역에서 대상지를 찾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수도권을 대상지로 선정한 109작품 가운데 95%(103작품)가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출품한 경우이고, 5%(6작품)는 수도권 이외에 소재한 대학에서 출품한 경우이다. 전국적으로는 86.5%(140작품)가 출품자들의 소속 대학과 인접하여 있고, 13.6%(22작품)만이 출품자들의 대학이 소재한 지역에서 벗어나 대상지를 선정하였다(Table 3 참조). "거리가 먼 대상지는 피하라"는 팁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두 번째는, 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압도적인 수상 실적과 비 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저조한 실적이다. 지난 11년간 수도권 소재 대학(비 조경학과 포함)에서 수상한 횟수는 117회(70%)였고, 수도권 이외의 대학에서 수상한 횟수는 50회(30%)였다. 전국에서 조경학과가 개설된 4년제 대학의 30%(14개)에 해당하는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수상작의 70%를 차지했고, 70%(33개)에 해당하는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수상작의 30%를 차지했다. 11년간 수상 실적이 없는 전북권(3개)을 포함하여 광주

Table 2. Location of selected site

Location(province)	Number and ratio of Selected site		Entries in the local universities	Entries of non-local universities
	Number	Ratio		
Seoul	77	47.6%	73	4
Inchon · Gyeonggido	32	19.7%	30	2
Daegu · Gyeongbuk	20	12.3%	14	6
Busan · Ulsan · Gyeongnam	15	9.3%	14	1
Gwangju · Jeonnam	6	3.7%	5	1
Gangwon	4	2.5%	0	4
Jeonbuk	3	1.9%	0	3
Daejeon · Chungnam	2	1.2%	1	1
Chungbuk	2	1.2%	2	0
Etc	1	0.6%	1	0
Total	162	100%	140(85.5%)	22(13.6%)

· 전남, 대전·충남, 충북, 강원을 모두 합한 5개 권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 개설된 조경학과는 전국의 40%(20개)에 이르지 않지만, 수상 실적은 10%(17회)에 그치고 있다(Table 3 참조). 주목할 만한 양극화 현상이지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조금 나은 것이 전부를 독식하는 것이 다수결의 원리이고, 경쟁(competition)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분야든지 양극화는 집단을 불안정하게 하고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 특히 조경 분야와 같은 소수 집단(minority)에서 양극화는 저변을 축소하여 발전 동력을 축소한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2) 대상지 유형

조경이 다루는 대상지 유형은 동시대 조경이 하고 있거나 하

Table 3. Number of local university and Winner owned university

Provinc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t the University		Number of winner owned University	Times of awarded local universities	
	Number	Ratio		Number	Ratio
Seoul	9	19%	7	91	54%
Inchon · Gyeonggido	5	11%	3	26	16%
Gangwon	3	6%	1	1	1%
Daegu · Gyeongbuk	6	13%	4	21	13%
Busan · Ulsan · Gyeongnam	7	15%	6	12	7%
Daejeon · Chungnam	7	15%	5	7	4%
Chungbuk	2	4%	1	4	2%
Gwangju · Jeonnam	5	11%	2	5	3%
Jeonbuk	3	6%	0	0	0%
Total	47	100%	29	167	100%

고 싶어 하는 일을 보여준다. 조경이 다루는 대상지 그 자체가 조경의 대상이자 업역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 주제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나 공간으로 조경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신선한 대상지를 찾아내는 것(2014, 정태열 심사평)”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전까지 조경에서 다루지 않았거나 인접 다른 영역에서 소홀히 하였던 것들에 대한 주목(2009, 성종상 심사평)”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11년 간의 대상지 유형은 ‘산업유산과 재생공간’이 38.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장 적게 다루어진 대상은 ‘정원’(1건, 0.6%)이었고, ‘교육 공간’과 ‘건강 공공복지 공간’(각각 3건, 1.8%)이 그 다음이었다(Table 4 참조). ‘산업 유산과 재생 공간’은 제1회(2004)부터 5회(2008)까지 수상작의 55%(73작품 중 40작품)를 차지했다. 2009년과 2010년은 녹지, 하천, 가로, 광장, 자전거도로, 도로, 철도와 같은 ‘녹색기반시설’이 많이 다루어졌다. 이는 ‘길’과 ‘공원도시’라는 주제와 관련되어 있다. 2011년은 연안 생태계, 하천, 습지, 서식처와 같은 ‘생태 자원 보존 및 복원 공간’ 유형을 다룬 수상작이 많았는데, 이는 ‘그린 인프라 그린 시티’라는 주제와 관련된다. 2012년은 도시 농업

이나 치유 같은 ‘건강과 공공복지 공간’ 유형이 다루어졌고, 2013년은 쪽방촌이나 고시촌과 같은 사회적 빈곤과 소외의 공간이 다루어지기도 했으며, 2014년은 구들장 논, 기름 유출, 전봇대와 같이 이전에 다루어지 않았던 대상지 유형이 다루어졌다(Yun, 2014). 2012년부터는 수상작들의 대상지 유형이 편중되지 않고 다양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경계(2012), 열린정원(2013), 공공복지(2014)와 같은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주제가 다양한 대상지 발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상지의 다양화를 유도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새로운 대상지 발굴이라는 과제를 통해 조경의 대상을 다양화하고 업역의 확장을 모색해 온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은, 조경의 관심이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에서 일상 생활공간과 관련된 프로젝트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경이 개발 지향적 가치 지향에서 일상과 삶의 기반으로서 역할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III. 심사평을 통해 본 평가 기준

#### 1. 평가 기준 분류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은 평가 기준을 심사자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도 있었고, 주최 측에서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심사평을 주요어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주제에 부합된 독창적 연출”, “주제와는 어떤 상관” 등과 같이 제시된 주제와 설계 내용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주목한 내용을 ‘주제와의 정합성’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 “땅의 이해”, “주변맥락과의 관계성”, “대상지 자체가 갖는 잠재력과 힘” 등과 같이 대상지 선정이나 분석과 관련된 언급을 ‘대상지 선정과 분석(해석)의 충실성’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셋째, “발상이 참신”, “고유한 아이디어”, “새로운 시도” 등과 같이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언급한 평들을 ‘개념(아이디어)의 참신성’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넷째, “설계의 논리성”, “계획 과정의 프로세스”, “논리적인 비약” 등과 같은 언급을 ‘설계과정의 논리성’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섯째, “개념이 디자인으로 표현되었는가”, “개념이 결과물로 이어지게 하려는 긴 호흡과 진솔함” 등과 같이 개념이 결과물로 이어지는가를 주목한 심사평을 ‘개념(아이디어)과 결과물의 연계성’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섯째, “탄탄한 패넌구성”, “무의미한 도해와 영문 표기”, “디자인의 완성도가 낮은 마스터플랜” 등과 같은 언급을 ‘설계

Table 4. Type of selected site

Type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Total
Industrial heritage & regeneration area	6	8	7	11	8	2	6	6	4	2	2	62
Green infrastructure	2	1	2	2	3	7	7	2	5	5	3	39
Housing	1	0	0	0	1	0	0	0	2	3	3	10
Ecological conservation & restoration	0	1	1	0	1	2	0	4	1	1	0	11
Water resources & system	0	0	1	2	2	1	1	1	0	0	1	9
Park	0	1	1	1	0	0	0	0	0	2	2	7
Historic & cultural heritage	1	1	0	1	0	2	0	0	0	1	0	6
Leisure & tourism	2	1	1	0	1	0	1	0	0	0	0	6
Rural · mountain · fishing village	0	0	0	0	0	1	0	2	1	0	1	5
Educational space	0	0	0	0	0	0	0	0	0	0	3	3
Public health & well-being space	0	0	0	1	0	0	0	0	2	0	0	3
Garden	1	0	0	0	0	0	0	0	0	0	0	1
Total	13	13	13	18	16	15	15	15	15	14	15	162

Table 5. Evaluation criteria indicated in commentary

Evaluation criteria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Total
Newness of the concept (idea)	4	4	6	7	6	11	8	9	9	8	6	78
Logicity of design process	1	6	6	6	7	12	7	6	7	8	6	72
Site selection & analysis fidelity	1	3	5	4	5	13	8	7	5	8	8	67
Design presentation & completion of masterplan	4	3	5	7	9	12	5	5	8	4	4	66
Conformity with the theme	2	4	5	5	3	8	5	5	10	8	8	63
Linkage of concepts & results (authenticity)	0	1	3	6	5	9	2	2	7	3	3	41
Feasibility	2	0	2	2	3	8	3	4	6	3	1	34
Business area and social role of landscape architecture	1	2	3	3	3	0	1	4	3	2	3	25

매체의 표현과 마스터플랜의 완성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곱째, "실현성에 의문을 가지지만", "이상만을 앞세운 현실에 대한 과도한 해석" 등과 같은 언급을 '실현가능성'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덟째, "조경 분야의 외연 확대", "조경 주도적인가의 여부", "작품 내용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가" 등과 같이 조경의 영역 확장, 사회적 역할에 주목한 평들을 '조경의 영역 확장과 사회적 역할'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개념(아이디어)의 참신성'이 78건(1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설계과정의 논리성'(72건, 16%), 대상지의 선정과 분석(해석)의 충실성(67건, 15%), 설계매체의 표현과 마스터플랜의 완성도(66건, 15%), 주제와의 적합성(63건, 14%), 개념(아이디어)과 결과물의 연계성(진정성) 41건(9%), 실현가능성 34건(8%), 조경의 영역 확장과 사회적 역할 25건(6%) 순이었다(Table 5 참조).

이 같은 결과는 "심사위원들은 모두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고, 공모전의 주제나 대상지가 비슷할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평가의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Cho and Ahn, 1993)"는 견해를 실증하는 것이다. 이는 설계 언어의 발전이나 발전적 설계 교육 방법 논의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 2. 평가 기준별 내용과 시사점

### 1) 개념(아이디어)의 참신성

'개념(아이디어)의 참신성'이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좋은 설계는 많은 조건을 고려하면서도 설계 개념을 잘 드러낸 것(2009, 정옥주 심사평)"이기 때문이다. "참신한 아이디어, 차별성을 보여주어야 당선 확률이 높고(2011, 정석 심사평)", "아이디어가 빈약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2012, 이종호 심사평)"는 조언은, 너무 당연해서 팀으로서의 유용성보다는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의미로 보인다.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은 학생 위주의 아이디어 공모전이기 때문에 "학생으로서의 새로운 시도(2006, 신동석 심사평)"가 더욱 강조된다. "학생작품이 주는 순수한 고뇌의 흔적, 창의성, 참신성 등이 부족하다(2012, 이상진 심사평)"는 지적을 통해 실험 정신과 독창성을 독려하기도 한다. "학생들의 설계가 설계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면, 무엇보다 '발상의 전환'과 그에 대한 '참신한 솔루션의 제시'이므로 이를 최고 항목의 심사기준으로 삼았다(2006, 김정운 심사평)"는 평가 같이 '아이디어의 참신성'은 최고의 가치로 평가받는다.

이와 비례하여 개념 의존적 접근 방식에 대한 경계와 아이디어 위주의 평가 편향 문제가 제기된다. "아무리 아이디어 공모전이라 하더라도 조경설계의 대상은 구현될 공간이어야 하고, 계획명분이 좋으면 조성될 공간이 당연히 좋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사고는 없어야 한다"는 평(2011, 정옥주)이나,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은 평범하다는 이유로 배제되고, 근거나 논리가 모호한 개념이 '참신' 과 '파격'이라는 이유로 용서된다"고 지적하는 심사평(2007, 변문기) 등이 대표적이다.

### 2) 설계과정의 논리성

설계과정의 논리성은 '최종안을 발굴해내기까지의 합리적 과정'(2005, 김한배 심사평)으로, 주제나 개념을 왜(Why) 도입했는지, 어떻게(How) 결과물로 귀결되는지를 작품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설계과정의 논리성(72건, 16%)'에 대한 언급은, "설계적 해법이 우수"하다거나, "설계 논리가 감성"이라는 우수성을 칭찬하는 평보다는, "과정의 고민이 배제되고 형식만을 중시(2007, 홍윤순 심사평)"했다거나,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 평(2009, 홍형순)과 같이 미흡함을 지적하는 의견이 두 배 이상 많았다.

이러한 문제는 "너무 큰 이상(개념)으로 출발해서 논리적인 비약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2013, 서영애 심사평). 그래서 "도전적인 파격보다는 충실한 구체적 풀이가 겸손한 용기(2007, 김영대 심사평)"라고 충고하기도 하고, "근거 없는 '참신'보다는 충실한 프로세스를 더 중요하다(2007, 변문기 심사평)"고 권고하기도 한다. 풀어나가기 버거운 개념을 참신하다고 내세우기보다 논리적 설계 과정에 보다 충실할 것을 강

조하고 있는 것이다.

### 3) 대상지의 선정과 분석(해석)의 충실성

대상지 선정이 무엇보다 주된 평가 기준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는 평들도 많다. “심사의 기준은 주제에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했는가(2010, 최신현 심사평)”에 있었다고 밝히는 평이나, “대상지의 맥락을 잘 해석하고, 폭 넓고 깊이 있는 리서치를 토양으로 대상지에 대한 흔적을 찾는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2009, 심사 총평)”는 평 등이 대표적이다.

대상지의 선정과 분석(해석)의 충실성에 대한 언급도 호평보다는 미흡함을 지적하거나 보완을 권고하는 평이 많았다. “대상지에 대한 파악이 도식적이고 대상지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한 문제의식이 부족(2009, 정옥주 심사평)”한 작품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신한 시각(2006, 임의제 심사평)”과 “문제의식(2008, 박준서 심사평)”을 가지고 대상지를 찾고, “대상지 잠재력의 조사·분석에 충실(2009, 조동범 심사평)”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대상지와 관련된 평들은 ‘주제에 맞추어 대상지를 찾고’, ‘설계자의 고유한 시각으로 대상지를 읽어내며’, ‘대상지와 주변 맥락에 대한 충실한 리서치’를 강조한다. 이는 공모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설계에 해당하는 중요한 과정일 것이다.

### 4) 설계매체의 표현과 마스터플랜의 완성도

표현과 마스터플랜의 완성도가 앞의 세 가지 항목과 거의 차이 없이 많이 언급(66건, 15%)되었다는 것은 앞의 기준들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좋은 작품은 탄탄한 내용과 함께 “반드시 좋은 표현과 설득력이 있는 그래픽이 뒤따라야(2012, 박승진 심사평)”하기 때문이다.

특이한 것은 표현과 관련된 평들은 대체로 ‘부가적 수사’와 함께 한다는 것이다. “표현도 우수하다”, “프리젠테이션에도 무리가 없다”, “프리젠테이션 또한 신선했다” 등이 그것이다. 그래픽이 우수하면 좋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표현과 관련된 언급은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첫째, 초창기는 “산뜻한 프리젠테이션 기법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2004, 김세천 심사평)”거나, “미흡하다(2004, 조성송 심사평)”는 평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2010, 이유직 심사평)”이라거나, “수준 높은 그래픽(2013, 김충식 심사평)”이라는 호평이 많아졌다. 표현의 수준과 완성도가 많이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초창기는 컴퓨터 그래픽에 “의존한다(2004, 김형선 심사평)”거나 “치중한다(2007, 이현택 심사평)”는 평과 같이, 컴퓨터그래픽에 대한 경계심과 함께 핸드 드로잉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평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컴퓨터그래픽이 보편화되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과도한 그래

픽으로 설계 내용이 빈약해지고 난해하다(2008, 이현택 심사평)”거나, “몽환적인 타이틀 이미지가 설계초점을 흐려놓았다(2009, 조동범 심사평)” 등과 같이 설계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현혹적 이미지’ 사용을 경계하는 평도 꾸준히 나타난다. 넷째, “디자인이 점차 생략되어 가는 듯(2007, 김진국 심사평)”하고, “평면(마스터플랜)의 완성도는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2014, 이유미)과 같이 마스터플랜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 들고, 완성도는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외국 트렌드의 무비판적 모방과 영문 표제의 무분별한 사용을 우려하는 평들이 꾸준히 나타난다. “최근의 외국 트렌드를 무비판적으로 모방했다(2005, 심사위원A)”거나 “영문으로 일관된 작품의 제목들은 우리네 상업지의 반짝이는 네온사인들처럼 자극적이기는 하나 진솔성이 결여된 듯하다(2008, 홍운순 심사평)” 같은 평들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162개 수상작 가운데 한글 표제는 31작품(19.1%)인데 비해 영어 표제는 114작품(70.4%)이었고, 영문 조어는 11작품(10.5%)이었다(Table 6 참조). “설계 언어든 일상의 언어든 문학의 언어든 언어에서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심사평(2007, 이수학)을 빌면, 한국조경은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공모전 주제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18개 수상작 모두가 영문표제였던 2007년(Table 6 참조)은 ‘도시인프라-조경을 만나다’라는 주제 하에 ‘Plant meets plant: Industrial site Design with Eco+Culture’라는 영문 조어가 부제였다. 또 한글제목은 한 작품도 없고, 혼합된 조어가 많았던 2011년은 ‘경계의 풍경(風景), 그 경계(境界)를 넘어(landscape on the edges, design beyond the borders)’가 주제였다. 한글제목이 가장 많았던 두 해인 2013년과 2014년은 각기 ‘열린 정원’과 ‘공공복지’가 주제였다. 주제가 대상지 선정과 작품 구상에 영향을

Table 6. Title analysis of the prize-winners

Year	Hangul (Korean) title	English title	Coined title	Total
2004	2	9	2	13
2005	4	9	0	13
2006	1	12	0	13
2007	0	18	0	18
2008	2	15	0	17
2009	4	10	1	15
2010	4	10	1	15
2011	0	7	8	15
2012	3	11	1	15
2013	5	7	2	14
2014	6	6	2	14
Total	31	114	17	162
Ratio	19.1%	70.4%	10.5%	100%



미치고, 작품의 특성을 대변하는 제목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알 수 있다.

#### 5) 주제와의 정합성

주제와의 정합성이 주된 평가 기준이었음을 분명히 한 심사평들도 많다. “최종 작품의 선정은 무엇보다도 ‘주제’에 두었다”(2005, 심사위원G 심사평)는 평이나, “주제를 오래 고민한 흔적이 담긴 작품”을 선정하고자 했다는 평(2008, 강동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관점에 주목하여 심사를 했지만, 만족스럽지 않았음을 밝히기도 한다. “주제와는 무관한 내용의 작품이 선정(2007, 노환기 심사평)”되는 경우도 있었고, “주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고 출품한 작품들이 선정(2012, 이유직 심사평)” 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타 공모전 출품작을 손봐서 입선된 운 좋은 작품”(2009, 김충식 심사평)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많은 참가자들이 각 대학의 졸업 작품을 일부 수정하여 출품하는 관행 때문이기도 하고, 주어진 주제에 대한 해석의 폭이 너무 넓어 정합성 판단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2009년은 주제 해석의 폭을 줄이고자 ‘길’이라는 주제 하에 세 가지 공간 유형을 제시했다. 하지만 주제와의 정합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이 가장 많은 해로 나타났다. “길이라는 주제에 좀 더 부합할 수 있었으면(2009, 나정화 심사평)”, “제시된 주제를 명확히 해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를(2009, 홍형순 심사평)” 같은 평들이 대표적이다. 참가자들은 ‘길’이라는 주제를 공간 유형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해석했기 때문이었다.

“주제는 공모전이 지향하는 방향이고, 앞으로 어떤 조경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색이나, 어떤 설계가들을 키워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담겨있다(2007, 이수학 심사평)”는 평은,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이 그 자체로 교육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언급이다. 때문에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 주제 선정은 교육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고, 그 정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6) 개념(아이디어)과 결과물의 연계성(진정성)

개념과 결과물의 연계성(41건, 9%)은 여섯 번째로 많이 언급되었다. “개념 설정 및 전개는 자연스러웠으나 도출된 안은 대상지와 괴리가 있다(2005, 최영주 심사평)”거나, “훌륭한 착상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나 가치를 효과적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2006, 성종상 심사평)”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개념이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주목하는 관점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설계자 작품은 의도를 어떻게 공간으로 구체화했는가(2013, 이유주현 심

사평)”를 주목한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들은 대부분 “공간적으로 발전시키고 형상화하는 부분에서 완성도를 달성하지 못하는 작품들이 많다(2012, 이유직 심사평)”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는, 시작은 창대하지만 끝은 미약한 “용두사미식의 프로젝트(2014, 민병욱 심사평)”를 지적하는 평이다. “컨셉트가 튼튼한 강점이지만, 마지막에 얼버무린 듯(2005, 심사위원F 심사평)”하다거나, “뽕뽕했던 풍선에서 바람이 빠져나가는 기분(2010, 김태경 심사평)”이라는 표현으로 개념에 비해 허망한 결과를 지적하고 있다. 이는 “시간에 쫓겨서 성급하게 마무리(2013, 서영애 심사평)”했을 수도 있고, “개념에 치우치다 공간을 놓치게 된 경우(2009, 정옥주 심사평)”일 수도 있으며, 실제보다 잘한 것처럼 보이려는 “레토닉(rhetoric)이나 할리우드 액션(2011, 홍윤순 심사평)”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경향을 “참가자들의 진정성 결여(2012, 김아연, 박승진 심사평)”때문인 것으로 진단한다. 같은 관점에서 설계자들이 “매순간에 진솔함과 진중함을 잃지 않았으면”하는 바람을 전하는 평(2011, 홍윤순)도 있다. 개념이 결과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설계를 위해서는 관념적 언어와 거대 담론에서 개념을 끌어오기 보다는 결과물 형성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단서를 개념으로 도출하고, 결과물로 이어지게 하려는 끈기를 키우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7)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성이 심사기준으로 제시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꾸준히 언급되어 일곱 번째를 기록했다(34건, 8%). 초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2004, 박제철 심사평)”거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2004, 김세천 심사평)” 작품이라는 직설적 평이 많았다. 회가 거듭되면서 “우리 도시의 공간적 현실을 어떻게 맞추어 갈 수 있을 것인가?(2008, 강동진 심사평)”, “과연 지붕에 핀 퍼머컬처 랜드스케이프가 그 무지막직한 변화로부터 구원할 수 있을까(2008, 조동범 심사평)” 같은 반어적 질문을 통해 현실에 기반하지 않는 아이디어의 공허함을 지적한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평가 기준으로 염두에 있더라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다. “실현 가능한 제안인지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2008, 전은정 심사평)”, “실현성에 의문을 가지지만(2009, 권진욱 심사평)” 같은 평들이 그것이다. 또 “나름대로 현실성도 있고(2009, 최원만 심사평)”, “실현가능성까지 고려된다면(2011, 홍윤순 심사평)” 같은 평들은 실현 가능성이란 것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부차적인 심사 기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이 꾸준히 언급되는 것은, “조경이라는 작업이 화관을 채우는 순수예술이 아니기에 현실상황에의 적용가능성도 충분히 담보되어야(2011, 홍윤순 심사평)”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실현 가능성은 평가 기준으로 적합하

지 않을 수도 있고,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부수적일 수 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작품이 ‘참신’과 ‘파격’이라는 이유로 용서되고(2007, 변문기 심사평)”, 좋은 성과를 거두어 다음 설계에 참조되는 선례가 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설계 실무든지 교육이든지 개념이 실현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하는 과정에 보다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작품에 임하는 진지한 자세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 존재하는 적절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2009, 홍형순)”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창의성과 현실가능성은 서로 다른 방향을 지향하는 국면으로 보기보다는, 현실은 창의성 발현의 토대이고, 창의적 사고는 실현(구현) 가능성을 높이는 호혜적 관계로 볼 필요가 있다.

#### 8) 조경의 영역 확장과 사회적 역할

‘조경의 영역 확장과 사회적 역할’이 별도로 분류될 정도로 적지 않게 언급(25건, 6%)된 것은 특이한 점이다. 이러한 기준이 일반적인 공모전에서 제시되는 경우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같은 언급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전문분야로서 조경의 영역과 관련된 것으로, “조경 주도적인가의 여부(2005, 심사위원H 심사평)”나 “조경업무 영역의 확장성 여부(2014, 정태열 심사평)”가 평가 기준이었음을 밝히는 평들이다. 둘째는, 조경의 대상이 되는 대상지 발굴과 관련하여 조경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들에 주목하는 관점이다. 독도를 다룬 작품을 육상처럼 바닷물로 채워진 해저면이 조경의 새로운 영역확장이라고 고무된 심사평(2011, 황용득)이나,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매립지를 조경의 영역 확장으로 높이 평가한 심사평(2012, 김정운)이 대표적이다. 셋째는, 조경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한 관점이다. “조경의 역할에 대한 설계자의 태도나 생각을 읽어 내고자 했다”는 심사평(2008, 박준서)이나 “조경이 사회적 문제에 책임을 느껴야함을 주장한 작품에 점수를 주었다”는 심사평(2008, 전은정)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평들은 시대 변화와 함께 영역 확장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이해된다.

## IV. 주요 쟁점과 설계 교육의 시사점

### 1. 주제를 통해 본 쟁점과 시사점

주제는 동시대 조경의 사회적 이슈, 조경문화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려하여 선정된다(2006, 심사총평). 이런 측면에서 매년 제시되는 주제의 특성을 파악하여 쟁점을 노출하는 것은 동시대 조경의 관심과 경향을 읽을 수 있는 통로로 유용하다. 주제를 통해 본 조경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 영역으로서 조경 역할과 전문성 정립은 오랜 고

민이자 쟁점이었다.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은 주제를 통해 “조경의 새로운 가능성 발견(2004)”을 요구하거나, “조경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 너머의 현실과 쟁점, 한계를 아우르면서 다른 시각의 해법을 제시(2007)”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고, “조경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도시 및 환경 문제를 해결(2008)”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대부분 학생들이 참가들이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져 온 것은 전문 영역으로서 조경 역할과 전문성 정립이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설이다. 조경이 다양한 방향에서 수세에 몰리는 최근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하는 조경은 시대적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하여, 시대적 가치에 부합하는 조경의 역할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과제이자 고민임을 보여준다.

둘째, ‘도시’와 ‘재생 공간’은 가장 장기간에 걸친 관심사였다. 제1회부터 5회까지의 주제는 모두 도시 산업과 공간 구조 변화에 따른 조경의 역할에 대한 것이었다. 따라서 도시와 재생공간이 대상지로 가장 많이 다루어졌다. 이는 동시대 세계 조경의 행보를 충분히 의식한 것으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으로 대표되는 조경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동시대적 반응(2007, 성종상 심사평)”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조경이 ‘재생 공간’ 프로젝트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었고,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 주제는 공모 지침으로서 평가 기준일 뿐만 아니라 조경의 새로운 영역이나 역할 모색과 연계된다. 도시 재생이 주제가 되던 해에는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지원프로그램, 주민 참여 분야까지 다루어졌고, 열린 정원이 주제가 되던 해에는 빈곤과 문화적 소외 같은 사회적 문제점들을 조경을 통해 해결해보고자 시도되었으며, 공공 복지가 주제가 되던 해에는 생활과 문화를 결합하고 생산과 산업을 융합할 수 있는 공간 창출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개념적 키워드를 통한 주제 제시 방식은 주제 해석의 폭이 넓을 수밖에 없어 “대상지를 제시하고 설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2008, 김재식 심사평)도 제시되지만, 이럴 경우는 새로운 대상지 발굴이나 새로운 역할 모색이라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 2. 대상지를 통해 본 쟁점과 시사점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것은, 설계자가 공모전의 주제를 이해하고 해석하여 주제에 맞는 작품을 설계하기 위한 설계가의 자발적 행위이며 또 하나의 설계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지 선정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동시대 조경의 쟁점과 경향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통로로 유용하다.

지난 11년간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 수상작들이 선정한 대상지는 수도권(67.3%)이 나머지 6개 권역의 합(10.5%)보다 여섯 배 이상 많은 정도로 많았다. 이렇게 대상지가 수도권에 집

중되는 현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조경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조경 설계가 어느 지역이나 적용되는 모범 답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적실한 일리(一理) 있는 답을 구하는 것(2014, 김연금 심사평)”이라면, 특정지역에 편중된 대상지는 설계적 접근 방식을 다양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모전의 수상작들은 하나의 참조(reference)로서 그 다음 설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하나의 경향성을 보이기도 한다. 특정 지역에서 제시하는 설계 방법이 지역적 특성이 다른 대상지에도 대입되어 지역적 특색을 균질화 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상지 발굴과 선정을 조경의 대상이나 영역 확장과 연계하여 우선시하는 관점(2014, 정태열 심사평)에서 보면, 대상지의 다양화는 조경 대상이나 영역을 다양화하는 방법일 것이다. 따라서 대상지의 다양화가 조경 분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때문에 다양한 이슈와 가능성을 가진 다양한 대상지를 발굴하려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참여와 성과는 비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각 지역에 소재한 대학은 지역적 쟁점이 되는 대상지를 발굴하고 선정하여 지역에 적합한 설계적 접근을 통해 공모전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 이슈를 공모전에 출품하여 쟁점화하거나 피드백을 받는 것은 지역과 대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주제를 제시함에 있어 지역적 차이를 발견하고 발견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대상지 유형은 동시대 조경이 하고 있거나 하고 싶어 하는 일이다. 2004년부터 2008까지 수상작의 55%가 ‘산업 유산과 재생 공간’ 유형을 다루었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도시 녹지, 가로, 광장과 같은 ‘녹색기반시설’이 많이 다루어졌다. 2012년부터는 대상지 유형이 편중되지 않고 다양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개발 지향적 가치보다는 일상과 삶의 기반으로서 조경의 역할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규모 공공프로젝트로서 조경보다는 소외 계층의 주거환경 문제나 공동체와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과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조경의 실천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반응이기도 할 것이다.

### 3. 심사평에 나타난 평가 기준과 설계 교육의 시사점

설계 공모가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거의 모든 경쟁이 그렇듯이, 설계 공모는 공정성 시비를 동반한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심사의 결과를 인정할 만한 심사위원의 구성되었는가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동의할만한 평가 기

준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이 심사자에 따라 임의적이거나, 그 결과가 편파적인 것이다. 편파적 결과는 편향적인 작품과 가치를 심을 수 있다(Cho and Ahn, 1993). 편파적 결과와 편향적 가치를 가지고는 좋은 작품을 만들거나 좋은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다. 평가 기준의 체계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평가 기준을 체계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어떤 작품이 좋은 작품이고, 어떤 작품이 그렇지 않은 작품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모전의 심사자들은 일정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고, 수상작이라는 심사자들 대다수가 동의한 결과물을 내어 놓는다. 공모전의 주제나 대상지가 비슷할 경우에는 동의할 수 있는 평가의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고, 그 기준은 지난 11년간 심사위원들이 남긴 심사평에 내포되어 있다. 심사평은 심사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된 장’으로 이끌어 냈으므로, 작품의 선정이 개인의 취향이나 총동적 산물이 아닌 심사자의 기준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기록이다.

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의 평가 기준으로 많이 언급된 것은 개념(아이디어)의 참신성, 설계과정의 논리성, 대상지의 선정과 분석(해석)의 충실성, 설계매체의 표현과 마스터플랜의 완성도, 주제와의 정합성, 개념(아이디어)과 결과물의 연계성, 실현가능성, 조경의 영역 확장과 사회적 역할이었다(Table 5 참조). 이 가운데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의 특수성으로 인한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조경의 영역 확장과 사회적 역할’을 제외한 일곱 가지는 일반적인 공모전에서 적용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평가 기준은 디자인 언어의 정밀함을 기르고 설계 교육의 새로운 방법을 도출하는 수단(Cho and Ahn, 1993)이기도 하다. 이러한 평가 기준을 통해 설계의 질적 향상과 설계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디어의 참신성’은 가장 많이 언급된 평가 기준이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훈련이 설계 교육에서 필수적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참신성’을 최선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조경작품을 예술로서 평가하는 관점이다. “예술의 고유한 근본적인 기능이 ‘가능한 세계’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데 있다면 한 예술작품의 가치평가는 그것이 얼마나 참신하고 열린 세계를 제시하며 얼마만큼 우리를 해방시켜 주느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Cho and Ahn, 1993). 그러나 개념 편향적 평가와 교육은 경계해야 한다. 설계 교육이 궁극적으로 좋은 공간 구현을 목표로 한다면, 좋은 공간은 설계의 전 과정이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좋은 공간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둘째, 설계 논리를 보다 중시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 설계 논리는, 설계라는 작업이 ‘지적 과정의 산물’임을 밝히는 통로이다. 이런 과정이 간과된 설계는 취향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주제의 해석을 구체화하기 위한 과정과 이를 위한 논리적인 증거에 대한 관심(2012, 김세준 심사평)”을 가져야 하고, “아이디어와 설계프로세스를 양손에 각각 들고 마지막 순간까지 충실하게 가져가고자 하는 노력(2011, 유승중 심사평)”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설계 논리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나 플라쥬, 드로잉, 모델링과 같은 다양한 설계 매체에 대한 관심과 탐구와 연습이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대상지와 관련된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대상지 분석(해석)은 대상지와 관련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설계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슈에 대한 정리이다(2014, 최정민 심사평). 대상지의 선정과 충실한 분석(해석) 과정은 대상지에 기반한 창의적 개념(아이디어)을 도출하는 과정이자 설계의 논리적 토대이다. 대상지를 찾고, 설계자의 고유한 시각으로 대상지를 읽어내며, 대상지와 주변 맥락에 대한 리서치를 수행하는 것은 설계의 기본 과정으로 보다 충실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넷째, 설계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현혹적 이미지’ 사용을 자제시키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컴퓨터그래픽이 일반화되고, 표현력이 성장하고, 출력작들의 표현 수준의 격차도 줄어들었지만, 이미지와 그래픽의 오용도 늘어나고, 디자인의 완성도는 점차 떨어지고 있다. 표현이 우수한 것만으로는 좋은 작품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 좋은 표현은 좋은 생각이 있을 때 빛을 발한다. 인터넷에서 좋은 이미지를 쉽게 구하기보다는 설계 내용과 관련된 이미지를 직접 생산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참신한 개념을 결과물로 이어지게 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많은 심사평들은 생각과 설계내용, 표현이 따로따로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는 설계 개념이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현혹하거나, 디자인으로 구체화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진정성’의 결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뿐 아니라 현대조경설계의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Zoh, 2000; Lee, 2004; Hong, 2011)되어 왔다. 개념이 결과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설계를 위해서는 관념적 언어와 거대 담론에서 개념을 끌어오기 보다는 결과물 형성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단서를 개념으로 도출하고, 결과물로 이어지게 하려는 끈기를 키우는 연습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주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대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주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그 자체가 설계자의 시선을 대변(2012, 박승진 심사평)”하기에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교육을 위한 설계 스튜디오에서 주요 과정으로 충분히 다룰 필요가 있다.

일곱째, 현실은 창의성 발현에 도움이 되고, 창의적 사고는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호혜적 관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실현 가능성이 부차적인 기준이기는 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담보

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는 현실과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라지기 쉽다. 실제로 실현 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당선작이 현실과의 갈등 속에 원형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설계 공모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Choi, 2006). 현실을 간과하는 지나친 제안은 작품의 진정성을 떨어뜨린다.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진지한 자세는 현실과 상상력 사이의 접점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설계 언어에 대한 고민과 정체성 모색이 필요하다. 외국 트렌드와 표현 기법의 모방이나 영문 표제의 사용은 세계화 시대에 당연해 보일 수 있는 현상이지만, 서구의 (설계)언어를 빌지 않으면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의 (설계)언어로 이야기할 수 없는 종속성을 심화시킨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 시대의 조경이 마주한 과제이기도 하다. “오늘날 전 지구의 문화적 특징의 핵심은 동일성과 차이가 서로 잡아먹음으로써 ‘승리자인 보편성’과 ‘패활한 특수성’을 획득하고자 벌이는 상호 노력의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아파두라이(Appadurai, 1996)는 세계화는 지역화를 동반하는 과정이라고 규정한다. 세계화는 서구에 맞추려는 일방적인 태도가 아닌 것이다. 현대 조경은 과거에는 알아주지 않았던 ‘지역적인 것’에 주목하여 설계 개념과 전략을 이끌어내고 지역성을 재창조하여 ‘세계적인 것’으로 거듭나게 한다. 지역적 차이(difference)는 우리들의 과거와 오늘의 현실(reality)이 결합하여 생성하면서 창출되는 것이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설계)언어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단초는 아무리 생각해도 교육인 것 같다.

## V. 결론

본 연구는 조경 분야의 대표적인 공모전인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을 분석하여 동시대 조경의 쟁점과 경향을 노출하고, 평가 기준의 체계화를 시도하여 설계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 주제는 공모 지침으로서 평가 기준일 뿐만 아니라 조경의 새로운 영역이나 역할 모색과 관련되어 있고, 전문 영역으로서 조경의 전문성 정립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둘째, ‘도시’와 ‘재생 공간’은 가장 오랜 관심사였고, ‘산업 유산과 재생 공간’, ‘녹색기반시설’은 가장 많이 다루어진 대상지 유형이었다.

셋째, 대상지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대규모 공공프로젝트로서 조경보다는 일상과 삶의 기반으로서 소외 계층의 주거환경 문제나 공동체와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조경의 역할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상지 선정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다 다양한

대상지를 발굴하려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조경 대상이나 영역을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수도권 소재 대학에 비해 비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참여와 성과는 현저히 낮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적 이슈와 가능성을 가진 대상지를 발굴하고, 지역적 차이를 발견하고 발현할 수 있는 설계 접근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여섯째, 개념(아이디어)의 참신성, 설계과정의 논리성, 대상지의 선정과 분석(해석)의 충실성, 설계매체의 표현과 마스터플랜의 완성도, 주제와의 정합성, 개념(아이디어)과 결과물의 연계성, 실현가능성이라는 일곱 가지는 일반적인 공모전에서도 준용할 수 있는 평가 기준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디자인 언어의 정밀함을 기르고 설계 교육 방법 모색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디어의 참신성'은 가장 많이 언급된 최고의 평가 기준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훈련이 설계 교육에서 필수적이지만, 개념 편향적 교육은 경계해야 하고, 설계의 전 과정이 균형 있게 다루는 설계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대상지와 관련된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설계 교육이 요구된다. 설계자의 고유한 시각으로 대상지를 읽어내는 리서치는 설계의 기본 과정이므로 보다 충실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셋째, 설계 논리를 보다 중시하고, 참신한 개념을 결과물로 이어지게 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 설계 논리는 설계라는 작업이 '지적 과정의 산물'임을 밝히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넷째, 이미지를 직접 생산하는 훈련과 설계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현혹적 이미지' 사용을 자제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주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그 자체가 설계자의 시선을 대변하므로 주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대한 연습이 설계 교육의 주요 과정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섯째, 현실은 창의성 발현에 도움이 되고, 창의적 사고는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호혜적 관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설계 언어에 대한 고민과 정체성 모색이 필요하다.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설계)언어 없이, '지역적인 것'에 주목하여 설계 개념과 전략을 이끌어내고 지역성을 재창조하여 '세계적인 것'으로 거듭나게 하는 현대 조경의 경향에 동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심사평이라는 형식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여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생생하게 쟁점을 추적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방법은 메타크리티시즘으로서 또 다른 비평을 기다리는 기록이다. 본 연구는 후세의 조경가들이 현재의 조경 이론이나 설계 과정, 설계 사고를 고

찰할 수 있는 통로이자 사료가 된다. 이는 조경 분야 발전의 토대가 되는 담론을 다양화하고 비평문화의 조성에 기여하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수상작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수상하지 못한 작품이라도 더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구체적인 작품 분석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도 더한다. 이를 다음 연구 과제로 남긴다.

## References

1. Appadurai, A.(1996)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차원현 등 역(2004) *고삐 풀린 현대성*. 서울: 현실문화연구.
2. Cho, Jung-Song and Kun-Yong Ahn(1993) Establishing criteria for the evaluation of landscape architectural work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21(3): 21-33.
3. Choi, Jung-Min(2006) 'Design behind of the design' Bom, *Landscape Architecture of the Ear of Design Competition*, Paju: Publishing Landscape Architecture, Korea.
4. Choi, Jung-Min(2012)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through the Yongsan Park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in *Tongsan Park*, Paju: Namudosi, Korea.
5. Dickie, G.(1966) *Aesthetics: An Introduction*. 오병남, 황유경 역(1988) *미학입문*. 서울: 서광사.
6. Hong, Youn-Soon(2011) A comparative study of landscape design competitions' guidelines and entry plans -The case of winning design proposals for urban infrastructure of the Hangdong Bogeumjari housing district-.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9(2): 18-28.
7. Kim, Ah-Yeon(2005) Bridge park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and its implications on contemporary landscape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3(5): 15-30.
8. Lee, Sang-Min(2006) (A) Study on the Contemporary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in View of "Design Media" with a Reference to Competition Entries. PhD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9. Lee, Sang-Min(2004) A critical review of the Seoul Forest Park design competition,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1(6): 15-27.
10. Pae, Jeoung-Hann(2002) New strategies for contemporary landscape design -Downsview park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and its implication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29(6): 62-71.
11. Park, Keun-Uyun and Jeoung-Hann Pae(2008) Design strategies of large park in the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for central open space in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Korea,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6(5): 13-25.
12. Yun, Su-jin(2014) Trend Analysis of Design in National Exhibition of Korea Landscape Architecture. Master's Thesis,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Korea.
13. Zoh, Kyung-Jin(2000) Paranoia: The Obsession of the Meaning of the Contemporary Korean Landscape Design, in *LOCUS 2*, Seoul: Landscape Architectural Culture, pp. 131-147.
14. 2004, The 1st National Exhibition of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Korea.
15. 2005, The 2nd National Exhibition of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Korea.
16. 2006, The 3rd National Exhibition of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Korea.

17. 2007, The 4th National Exhibition of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Korea.
18. 2008, The 5th National Exhibition of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Korea.
19. 2009, The 6th National Exhibition of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Korea.
20. 2010, The 7th National Exhibition of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Korea.
21. 2011, The 8th National Exhibition of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Korea.
22. 2012, The 9th National Exhibition of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Korea.
23. 2013, The 10th National Exhibition of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Korea.
24. 2014, The 11th National Exhibition of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Korea.
25. <http://gongmo.nulpurun.or.kr>

---

Received : 23 February, 2016

Revised : 28 March, 2016 (1st)  
20 April, 2016 (2nd)

Accepted : 20 April, 2016

3인익명 심사필